

영아 보육교사의 자질 및 역할과 전문성에 관한 심층사례 연구*

A Depth Interview on Qualification, Role, and Professionalism of Infant/Toddler Teachers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안 선 희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 지 은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hn, Sun H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Kim, Ji Eu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materials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51 infant/toddler teachers through in-depth interview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care cent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fant/toddler teachers got less credits of young child care and education subjects than day care teachers did. The current criteria for qualification of infant/toddler teachers was not appropriate for providing the child care services. An efficient and substantial curriculum must be designed to facilitate the day care services for infant/toddler teachers. Second, the infant/toddler teachers recognized that their roles were similar to child care teachers. The curriculum and practice must encourage and nurture the characters, beliefs, and dispositions of infant/toddler teacher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various problem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infant/toddler teachers. Several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전문성(professionalism), 영아 보육교사(infant/toddler teacher), 보육(child care)

Corresponding Author : Kim, Ji E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322 Danwol-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380-701, Korea Tel: +82-43-840-3381 Fax: +82-43-852-2753 E-mail: jek@kku.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기초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14-C00312)

I. 서론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정부의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점차로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매우 미흡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기준 제시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도 중요하지만, 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일차적 관계를 맺고 있는 보육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양옥승, 1993; 이미화, 2006; Bloom & Sheerer, 1992; Bredekamp, 1989).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교사의 역량 즉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양옥승, 1993; 김정자, 2000).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Spodek(1975)은 장기간에 걸쳐 필요한 내용을 훈련, 교육받아야 하고, 폭넓은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자율적인 조직체제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Ritzer(1977)는 전문성을 오랜 기간의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통해 얻어진 고도의 지적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에 관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한 데 반해, 전문화란 그 직업이 사회로부터 전문직으로 대우받고 있는지, 전문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실무에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에서 전문성에 대한 공통적 의견을 찾아보면,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Ritzer(1977)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요소를 전문화에 포함시켰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행수준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계발, 자율성, 책임성, 보육프로그램, 보육신념의 하위 영역에 대해 보육신념과 책임성 영역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육프로그램 영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들도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미화, 2007). 조사대상 교사들의 전문성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교직의 전문성에서 활용하는 지적 능력, 사회기여, 자율성, 전문직 단체와 직업윤리,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구성 요소로 제시한데 반해(김현경, 1980; 김혜린, 1993),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교사의 전문적 능력에 기초하여 인식을 알아본 결과로는 교사의 신념이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교실에서 실행하는 많은 의사결

정은 현장 경험과 계속되는 교육적 자극을 받아 교사 자신이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만은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함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어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들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기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로 자녀 양육을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취업여성들은 영아기 자녀들이 보육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수준 높은 교사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찾으려고 하고, 그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교사는 영아의 욕구를 보다 많이 수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높은 자질이 요구된다. 영아 보육교사는 영아를 단순히 보호하고 양육, 교육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영아의 전인발달을 위한 복지적인 차원과 연계하여 영아 및 가족과 지역사회에 이르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지은, 2005). 영아 보육교사는 상호작용 및 평가, 건강과 안전, 기본생활습관, 그리고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과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은 보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영아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자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비전문직이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조차도 교육보다는 보살핌의 역할이 많은 영아보육의 업무에 대해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는다. 실제로 영아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초임교사들이 영아반을 맡게 되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혼동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완희, 2004). 그리고 기혼교사보다 미혼교사가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역할수행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혼교사가 미혼교사보다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유진, 2003)와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영아반 교사의 연령층은 30대로 양육경험이 있는 교사를 선호한다는 결과(신배식, 2002)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아보육의 특성상 먹고 씻기고 잠재우는 등의 보살핌이 절대적이다 보니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양육역할은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낮은 사회적 인식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아 보육교사의 역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간발달 주기에서 영아기는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나 가장 급격하고 현저하게 발달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시기이다. 영아기의 발달특성상 부모 이외에 교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영어 보육교사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보육의 질은 확보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육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김지은, 안선희, 2009). 그러므로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으며 전문성은 교사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양옥승, 1993). 실제로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수준은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임을 여러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다(김지은, 2005; 손현희, 2007; 지성에, 1998; Bloom & Sheer, 1992). 즉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의 학급프로그램 질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교사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부모들과도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유아에서 중등학교 교사에 비해 인간발달에서 가장 결정적 시기를 다루는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영어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조사한 대다수의 연구들(김유진, 2003; 김지은, 안선희, 2009; 신배식, 2002; 이수정, 1999)은 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적 접근은 교사들의 전문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기술하고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영어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영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정도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보육교사의 역할을 파악하며,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들의 요구를 기초로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Saracho와 Spodek(1993)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가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교사로서 특별한 역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환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에서 이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부모들의 욕구와 미래의 보육 요구에 대응하고, 교사들이 건전한 능력을 발휘하여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보육을 위한 영어 보육교사들의 전문지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전문지식은 어떻게 습득하는가? 둘째, 보육현장에서 영어 보육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영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어 보육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특별시의 보육시설(법인, 직장, 국·공립, 민간)에 근무하는 영어반 교사 51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무선으로 표집하여 전화를 걸은 후 영어 보육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보인 교사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어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교사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28명(54.9%), 30대가 16명(31.3%), 40대 이상이 5명(9.8%), 50대 이상이 2명(3.9%)으로, 20대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결혼을 한 보육교사가 45.1%이고 미혼교사가 54.9%로 미혼교사가 약간 더 많았다. 교사의 총 경력은 2개월에서 15년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이 중에서 영어반 경력은 3년 미만이 68.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교사들의 학력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8명(15.7%), 전문대 졸업자가 21명(41.2%),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0명(39.2%), 대학원 졸업자가 2명(3.9%)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어 보육교사들이 재직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35.3%, 민간보육시설 31.3%, 직장보육시설 19.6%, 법인 보육시설 13.7%이었다. 보육교사가 된 이후 이직을 전혀 하지 않은 교사가 52.9%였으며 한두 번

〈표 1〉 영아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

(N = 51)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 령	20대	28	54.9
	30대	16	31.3
	40대	5	9.8
	50대	2	3.9
결혼여부	기혼	23	45.1
	미혼	28	54.9
최종학력	고졸	8	15.7
	전문대졸	21	41.2
	대졸	20	39.2
	대학원졸	2	3.9
기관유형	국공립	18	35.3
	민간	16	31.3
	직장	10	19.6
	법인	7	13.7
평가인증 여부	인증	29	56.9
	미인증	22	43.1
근무경력	1-3년미만	20	39.2
	3-5년미만	8	15.7
	5-7년미만	12	23.5
	7-10년미만	8	15.7
	10년이상	3	5.9
영아반 경력	1-3년미만	35	68.6
	3-5년미만	10	19.6
	5-7년미만	5	9.8
	7-10년미만	1	2.0
	10년이상	0	-
이직횟수	없음	27	52.9
	1-2회	12	23.5
	3-5회	5	9.8
	5회이상	7	13.7
근무시간	9시간미만	8	15.7
	9-10시간	34	66.7
	11시간이상	9	17.7
월평균 보수	100만원미만	15	29.4
	101-150만원	25	49.0
	151만원이상	8	15.7
교사연수	없음	21	41.1
	년1-2회	24	47.1
	년3회이상	6	11.8

정도 이직한 교사들은 23.5%이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가 전체 56.9%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들의 실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1명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2008년 1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의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과 통합교육에 들어간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면접하였다.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

에서 평소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교사의 “산경험(lived experience)”으로 드러내고 그 의미를 ‘체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구대상에 따라 1시간 20분에서 3시간 정도의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교사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상호 협력하여 면접을 진행할 수 있고 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면담자와의 레포 형성을 위하여 처음 20~30분을 사용하였고, 일단 레포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면접 내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접이 끝난 후 녹음내용을 전사하였다.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삼각검증(triangulation)방법으로 질문지, 면접, 그리고 문헌 분석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Lincoln & Guba, 1985).

3. 자료분석

자료분석 과정에서 먼저 전사된 면접 자료의 일부를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주제별로 부호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는 여러 번 읽어 가면서 주제를 잡고 주제에 맞게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에 다음의 3단계를 따랐다. 첫째, 자료수집 후 1차 분석단계이다. 둘째, 수집과정에서 모아진 자료들을 세밀하게 읽어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그 단어들에 영역을 부가하여 도출된 각 영역들의 관계 및 하위영역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유목화하는 단계이다. 셋째, 이들 유목화된 영역에 대한 정교화 단계이다. 유목화된 영역의 틀을 가지고 다시 자료들을 검토하여 각 영역의 성분들을 찾아내어 다시 유목화시키고 이를 통해 자료에서 관련 내용들을 발췌하는 순서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교육전문가이면서 질적 접근의 전문가 2인의 검증을 거쳤고, 일차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대상자 3인에게 나누어 주어 내용과 해석을 검증하게 한 후 첨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영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는 전문 지식 및 습득과정, 교사의 자질 및 역할, 전문성 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범주를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보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습득과정

영아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영아 보육교사들의 생각들을 알아보았다. 면접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발달 및 교육적 지식에 대하여 70~80% 정도는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20~30% 정도는 개별성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매년마다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영아보육에 필요한 지식은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자료실에서 스크랩해보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어린이집 내부의 세미나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접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아 보육교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영아보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실습기간 외에 자원봉사로 현장체험을 많이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영아를 대하는 기술적 측면은 실습교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보통 초임 때는 선배교사들이나 다른 동료 교사들을 모델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쌓이면서 차츰 유아 잡지나 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참고하고, 영아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현재 아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조언을 구하는 교사도 있었다.

만 1세반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를 안 낳아보고 배워본다는 기본으로 영영아부터 영아반까지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보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미비한 지식이지만, 제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구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담임으로는 50%~60% 정도는 안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부분은 선배교사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같아요.

(교사 4, 20대, 미혼, 직장, 2년 6개월, 2. 18)

저는 0세반 담임이에요. 첫해를 하고 지나갔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질문하면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1년간 보니, 완벽히 안다고는 못하구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 막상 닥쳤을 때 지식과 연결하는 부분이 힘들어요.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접하는 그 상황에 대한 개입, 시기에 대한 개입 이런 것은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요. 저는 같은 반 선생님이 세 분 계시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여쭙 보는 편이구요. 인터넷 자료도 많이 봐요.

(교사 15, 20대, 미혼, 법인, 1년 10개월, 1. 31)

쉽게 말하면 민간요법처럼, 내가 우리 아이 키워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정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했던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것을 접목시킬 수 없어요. 평상시 내가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한테 접목시키고 아이들 돌보는 거지, 이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교사 32, 30대, 기혼, 민간, 1년 6개월, 2. 11)

만 2세반 담임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 관리나 상황에 대한 순발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삼성에서 하는 영아기 사이버교육을 두 달 정도 받으면서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지 않았나... 실제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이론적인 부분에 부족함을

느꼈던 터라 새롭게 배웠어요.

(교사 12, 30대, 기혼, 법인, 9년, 1. 30)

0세반을 맡고 있는데, 전 0세반에 대해 75%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는 부분은 책이나 선배교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한 부분만으로 영아반을 가르치기엔 부족해서 지금 방통대 유아교육과에 편입해서 이번에 졸업해요. 전공은 아동보육학과 나와서 1급을 받았구요. 저는 경험과 이론을 같이 배우니까 이해가 좀 쉽더라고요.

(교사 18, 20대, 미혼, 직장, 3년 2개월, 2. 20)

책이나 월간유아, 잡지들을 통해서 많이 읽어요. 포맷세나 이런 것을 보고, 연령별로 나와 있는 책자를 참고하고 유아교육사이트에서도 정보를 많이 보아요.

(교사 15, 20대, 미혼, 법인, 1년 11개월, 1. 31)

책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경험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지만, 그걸 본다고 똑같이 되진 않더라고요. 아이들 반응하는 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스스로 많이 터득하는 편이에요.

(교사 9, 30대, 미혼, 민간, 9년 11개월, 1. 31)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같이 생활하는 메이트 교사에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느껴요. 아닌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초임 때는 동화가 되고, 경력이 생기면 대화로 의논해요.

(교사 5, 20대, 미혼, 직장, 3년, 2. 20)

저는 실습했을 때 지도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요, 실습 때 기술 같은 것은 세심하게 배우기도 했어요. 책도 보고, 삼성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터득하기도 했어요.

(교사 21, 20대, 미혼, 직장, 2년 11개월, 2. 12)

주위에서 듣기도 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참고가 되는 것은 출산한 엄마들 경험담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경험을 무시 못 하거든요. 원장 선생님과 출산한 교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어요.

(교사 13, 20대, 미혼, 민간, 4년, 2. 28)

초임에는 선배교사를 많이 봤었어요. 가끔은 초임이다 보니까... 선배 교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따라하게 되고, 나중에 몸에 굳어져서 고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요즘엔 내부 세미나가 있어서 그걸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기를 원장님이 원하세요. 특히 영아반은 더 모르니까, 보고 듣고 행해보는 거죠.

(교사 1, 20대, 기혼, 직장, 4년 10개월, 2. 2)

2. 영아 보육교사의 자질 및 역할

영아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본 연구대상이 응답한 결과를 기초로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인성적 자질

면접에 응한 교사들은 영아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사랑과 애정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애착형성이 영아에게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므로 유아보다 좀 더 개별적이면서 따뜻한 온정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달상 미숙한 영아를 교사가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특히 월령이 어릴수록 개인차가 심하므로 영

아 개개인의 발달특성을 파악하고, 반응이 나타날 때 까지 조금씩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음의 여유로움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할 때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와 교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도 고려해서 학부모들에게 까지 여유롭게 대해야 하는 점도 영아반 교사의 자질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사랑이에요.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해요. 형식적으로 그냥 머리 쓰다듬고, 뭐 이러면서 “어 왔어”, 그거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어야 되요. 아가들은 작잖아요, 저희들이 무릎을 꿇으면 아이하고 눈이 맞아요. 가슴으로 아이를 안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교사 32, 30대, 기혼, 민간, 1년 6개월, 2. 11)

따뜻함이나 그런 거는 어느 연령이든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있어서 따뜻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46, 20대, 미혼, 국공립, 6년, 4. 17)

인내가 필요해요. 영아들은 이유 없이 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인데,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영아반 하면서 인내심 있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30, 30대, 기혼, 법인, 6년, 2. 11)

유아반은 말을 알아듣고, 영아반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깐 선생님이 인내하고 엄마처럼 잘 돌봐주어야 해요. 저는 목적을 가지고 해주고 싶는데, 끝까지 해 주고자 할 때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 3, 30대, 기혼, 민간, 2년, 2. 25)

마음의 여유로움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정말 필요해요. 큰 반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학습적인 것, 교육적인 것을 많이 물어보지만, 영아반의 학부모들은 특히 가장 어린 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에 “똥 싸어요”부터 해서 일상적인 것, 잠자는 것, 영양적인 것 까지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모들에게 여유롭게 대해야 하는 것도 영아반 교사의 자질인 것 같아요.
(교사 29, 20대, 미혼, 법인, 3년 3개월, 2. 1)

2) 전문적 자질

영아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자질로는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건강지도를 위해 안전이나 응급상황에서의 사전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행동이 빨라야 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거나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의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발달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발달지식만으로도 보육이나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 1세반만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기저귀 가는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실습 때 해봤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지도 않구요. 그러니까 발달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 47, 20대, 미혼, 국공립, 3년, 4. 17)

예방접종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응급처치 방법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주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랑해주는 것과 기본생활습관도 중요하고, 그래도 건강지도가 제일 중요하죠.
(교사 7, 30대, 기혼, 법인, 10년, 2.28)

일단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나 까요. 그리고 스킨십과 안전이구요. 그 중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기본이지만, 솔직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부모의 반응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무조건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다쳤을 때, 엄마는 선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안 보시고 오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안전이에요.
(교사 25, 20대, 미혼, 민간, 5년, 2. 26)

건강이나 안전에 대처할 만한 교육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작년에 직장보육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워크샵을 통해 안전에 관한 응급처치나 소방안전, 영아들이 이물질을 삼켰을 때, 이런 것들을 소방안전본부에 가서 전체적으로 실습을 했어요.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선 교사가 당황하지 않아야 아이도 안정을 취하는데... 다쳤을 때 난감했거든요.
(교사 42, 20대, 미혼, 직장, 2년 11개월, 2. 20)

적극적이고 행동이 빨라야 해요. 상황판단에 있어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토를 한다거나 쉬를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초임 교사들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많이 당황해서 머뭇거리게 되는 데 그러면 안 되고, 손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해요.
(교사 40, 30대, 기혼, 국공립, 7년, 2. 18)

3) 영아 보육교사의 역할

영아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교사들은 영아를 세심하게 챙기고 관찰하며, 위험물로부터의 차단이나 배려를 해야 하며 교사들은 엄마 대신으로 영아를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육과 보호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영아 보육교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좀 더 영아반 선생님은 섬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이요.
(교사 42, 20대, 미혼, 직장, 2년 11개월, 2. 20)

교사나 원의 입장에서 영아반은 돌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부모님도 영아반 교사는 돌보는 역할 위주라고 생각하구요. “우리 아기 잘 먹었어요?”와 같이 아이가 얼마나 뭘 했느냐보다는 돌보는 위주의 질문이 많아요.
(교사 1, 20대, 기혼, 직장, 4년 10개월, 2. 2)

영아반은 그냥 집처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고 재미있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많고, 유아반은 스스로 조절하는 나이가 되니까 지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사 9, 30대, 기혼, 민간, 9년 11개월, 1. 31)

당연한 것이겠지만 조금 더 개별적이고 따뜻한 온정적 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이 더 많이 일어나고, 영아반이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사 10, 20대, 미혼, 직장, 3년, 2. 4)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아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또 엄마의 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14, 30대, 기혼, 국공립, 6년, 2. 29)

애착형성이 아직 안된 아이들이 많아서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고, 위생적으로 더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 때 그 때의 행동이 개월에 맞는 지 체크도 할 수 있고, 배밀이를 생각하고 기어가는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교사 6, 20대, 기혼, 민간, 4년 6개월, 2. 27)

3.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제고방안

1)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영아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면접에 응한 교사의 대부분이 영아 보육교사는 전문가라고 말했으나, 주변으로부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보수가 낮고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전문가여야 되죠... 그런데 가끔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4년 공부한 것 아니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주 모르는 사람이 놀이를 할 때랑은 다르죠. 발달수준을 아니까 보이는 것이 다르죠. 스스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질문하면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은 전반적으로 유아반을 더 인정해 주시고, 영아반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사 1, 20대, 기혼, 직장, 4년 10개월, 2. 2)

보육교사는 전공한 교사보다 그렇지 않은 양성교육과정 교사가 훨씬 많아요. 보수가 같고, 단지 경력 위주이고, 또 사립은 보수도 취약해서 전문가라고 100% 말하긴 힘들어요. 스스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도 전문가라고 보는 것 같지 않고, 애를 싸우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가 똑같으니, 1년 과정할 걸 괜히 학교 나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어찌면 보육교사 명칭 때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처럼 대우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사 6, 20대, 기혼, 민간, 4년 6개월, 2. 27)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렸을 때 대부분의 많은 습관도 형성이 되고,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시 되는 시간인데, 그냥 지나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직 저희 보육교사를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교사라고 생각 못하고 애기 싸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교사 15, 20대, 미혼, 법인, 1년 11개월, 1. 31)

제 동생도, 형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전문적인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 과목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해요. 식사지도에서부터 낮잠지도까지... 전문적 지식 없이는 할 수 없고, 엄마의 역할과는 또 달라요.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교사 17, 30대, 기혼, 국공립, 15년, 2. 4)

2)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영아 보육교사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환

경과 처우가 개선되어져 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보육교사교육원을 폐지하고 자격획득을 위해 현행제도처럼 이수과목으로 정하기보다는 자격과정을 관련학과로 제한해야 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초·중등 교사와 같이 대우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이번에 노동부에서 교사의 점심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병원이거나 은행 불일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휴가도 정말 눈치보며 불편하게 가고, 결혼도 임신도 마음대로 아무 때나 못하고, 공부도 더 하고 싶어도 대학원 가는 게 눈치 보이고, 일반 회사처럼 공식적으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월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 21, 30대, 기혼, 직장, 2년 11개월, 2. 12)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교사의 처우, 보수에 관해서 인데요. 같은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이 달라서 사회생활을 했을 때, 보수적인 면에서 너무 낮은 대우를 받아요. 1년 양성과정이나 2년제, 4년제 역시 특별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담임을 맡고 있어도 급여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급 교사는 수습기간을 활용한다든지, 부담임을 먼저 하게 한다든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력과 자격에 따른 임금에 차이가 없고, 경력에 따른 호봉 차이도 너무 작고, 게다가 어린이집마다 급여의 차이는 많잖아요. 교사나 공무원 처럼 학력, 자격, 경력에 따라 지정된 호봉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 10, 20대, 미혼, 직장, 3년, 2. 4)

(2) 사회적 인식 변화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듯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우선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더 우월하다고 봐요. 저는 월급이 오르면 선생님들을 대하는 대우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치원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는 차별을 두어요.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나왔다고 인정해주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도 전문대 나오고 했지만 엄마들조차도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 34, 30대, 기혼, 민간, 8년 11개월, 2. 12)

솔직히 저희 학부모님들도 말씀으로는 "선생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대단하세요. 그 많은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이러시지만 사실 시선으로는 부모의 수준으로 밖에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고학력·고임금을 받아야 인정해 주는 사회잖아요. 저희도 받을 만큼 받고 있는데, 다른 분들 보기에는 안쓰러워 보이거나 봐요.
(교사 40, 30대, 기혼, 국공립, 7년, 2. 18)

(3) 재교육 강화

영아반 같은 경우엔 아이를 키웠다고 해서 영아반 하는 건 물론 플러스가 되지만, 직접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영아반은 건강, 위생, 교육 등 골고루 전반적으로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요즘 가족구조도 많이 바뀌어서 정말 특이한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까지 다해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 6, 20대, 기혼, 민간, 4년 6개월, 2. 27)

이론적인 것보다 정말 실제로 가까운 교육이 도움이 되요. 실제로 교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어요. 배변훈련이나 젖병떼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아들이 떼쓰거나,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법도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교사 11, 20대, 미혼, 민간, 2년 11개월, 2, 20)

발달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들 같은 것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들 발달이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론적인 것은 사실 실제적인 것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변화하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교사 46, 20대, 미혼, 국공립, 6년, 4, 17)

이론적인 것은 책 찾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초임 때 학부모를 대하는 거나 한 반을 운영하면서 이론적인 거랑 실제적인 거랑 다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사 19, 20대, 미혼, 직장, 1년 11개월, 2, 20)

부모교육이 필요해요. 부모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상담할 것인가, 그것만 잘해도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초임 교사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게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초임일 때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의 의견을 부모에게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교사 26, 30대, 기혼, 민간, 7년 11개월, 1, 31)

저는 교사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입교사는 1세반 교사를 처음 해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교사라는 생각이 안 든대요... 물론 경력교사가 있고 자기의 위치가 있어서 팀티칭(투담임과 비숫)을 하느라 많이 따라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대하는 태도들을 통해서도 스스로 자괴감, “아! 내가 정말 교사일까, 내가 이 길을 가야할까?”라는 생각을 큰 반보다 훨씬 많이 한다고 해요. 3, 4년차 되는 교사들도 교사 생활을 하다보면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네가 알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교육이나 상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 28, 30대, 기혼, 법인, 5년 11개월, 2, 1)

(4) 교사 자격기준 강화

자격 자체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해요. 보육교사교육원처럼 1년 과정은 다 없애고, 급수나 자격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초등학교처럼 정교사도 있고, 부장교사도 있고, 그런 것처럼 급수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자격도 1차적으로 유아교육과가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 관련학과가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학과도 남받하지 말고 전공자 위주로만 자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교사 17, 30대, 기혼, 국공립, 15년, 2, 4)

(5) 공보육화

어린이집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범위들은 강화해서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말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야기 해드리면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소아정신과에 가서 상담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보시는건 아닌지 ...

(교사 42, 20대, 미혼, 직장, 2년 11개월, 2, 20)

IV. 논의 및 결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수의 감소, 기혼 취업여성의 증가, 핵가족화 등이 보편화되면서 영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가진 일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다. 양질의 영아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아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영아 보육교사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영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영아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확인해보며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51명의 영아 보육교사들에게 영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한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영아에 관한 발달 및 교육적 지식을 개괄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영아발달과 보육지식은 경력 등과 같은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면접 시기가 학기말이다 보니 어느 정도 보육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실습기간 외에도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현장경험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영아들간에 발달수준 차이가 크다보니 교사들이 교재를 통해 배운 일반적인 발달지식만으로 보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아보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선배교사를 모델링하거나 조언을 듣고,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자료실에서 스크랩해보거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접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은 영아보육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직전교육과정에서 영유아교육을 함께 다루고 있고 영아보육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탓으로 추론되는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영아

보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계획되어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받는다.

둘째, 영아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 사랑, 인내심, 따뜻함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영아발달과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영아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즉 교사들은 영아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따뜻함과 애정 등의 인성적 자질을 많이 강조한 반면, 교육과정 운영이나 환경 구성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영아 보육교사는 학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유아반에 비해 영아반은 부담이 덜되고 자유로운 점이라고 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 보육교사들은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질병을 폐고 배변훈련을 하는 등 양육자의 역할에 비중을 높여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보육대상인 영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교육보다는 양육과 보호에 역점을 두어 필요한 자질과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전문성 영역에서 영유아교사 모두 영유아놀이지도 및 교수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나 영아 보육교사는 보호 및 육아능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혜경, 김영옥, 지성애, 2004). 물론 보육대상이 영아이기 때문에 대리양육자로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나 그저 먹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자극이나 교육적 요소를 등한시 할 우려가 있다. 영아가 다른 발달주기에 비하여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영아 보육교사들에게 영아들의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역할의 중요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성 인식과 관련하여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면접에 참여한 영아 보육교사들 대부분은 보육교사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인식을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김유진, 2003; 김지은, 안선희, 2009; 이희선, 2004; 장은실, 2006). 그러나 인터뷰과정에서 영아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과 역할수행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자처하고 있으나 사회나 학부모들이 전문가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사회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인식하지 않은데다 영아보육 특성상 보살핌이 절대적이다 보니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면접에서 양육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신뢰하지 않아 자신의 일에 대한 어려움과 회의를 느꼈다는 미혼 영아 보육교사도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영아가 다쳤을 때 학부모의 항의를

받거나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김유진, 2003). 따라서 영아 보육교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성 인식과 관련하여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아 보육교사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수 및 처우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었다. 처우와 복지여건에 대해 불만족은 보육교사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로서 이번 조사에서도 현실적으로 낮은 대우나 보수는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낮추게 만드는 걸림돌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전문성 인식 요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간에 상관이 있으며,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진, 2003). 보육교사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 및 처우’, ‘개인적 자질’, ‘사회적 인정’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미화, 2006). 이와 유사하게 근무시간이 길고 월 보수액이 적을수록 영아 보육교사들의 소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직을 장기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은, 안선희, 2007).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사가 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사회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우를 해 주느냐가 교사의 지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기는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형성이 주요한 발달과업이므로 대리양육자인 영아 보육교사와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개인간의 차이가 큰 영아들에게 민감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그들의 이직을 막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영아 보육교사들은 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영아 보육교사들 스스로도 현직교육과정에서 영아보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영아보육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였다. 이들이 영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현실은 최근 보육교사들의 영아발달지식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안선희와 동료들(안선희, 안효진, 문혁준, 2008)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 있는 영아 보육교사들의 전문지식 정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이 재교육에 참여하여 영아의 발달과정, 건강과 안전, 양육에 관한 기본적

지식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직 영아담당 보육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아 보육교사들을 위한 개정된 보수교육과정에는 특별직무 교육과정과 승급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나 보수프로그램 운영 및 실제, 보육환경을 계획하고 구성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교육은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아 보육교사들의 실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영아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많고 참여율조차 미흡하다고 한다(이명조, 2007).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아 보육교사들의 요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인성 개발에 필요한 교양과목도 포함시켜야만 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직교사가 재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영아보육의 비중이 높은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재교육 참여율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낮다고 하므로(서문희 외, 2005) 이들이 재교육에 제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영아 보육교사들을 위해 사이버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영아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교원 양성대학 2년제, 3년제 및 4년제 대학 교과과정은 영아교사를 양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영아를 위한 기본적 보호와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과정에서는 미흡한 영아발달 및 육아관련 교과목을 강화하여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박혜원, 2000; 안선희 외, 2008; 이미화, 2007; 이진희, 임진형, 2004)에서 제기되어 왔다. 즉 영아 보육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인성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고, 영아발달, 부모와의 관계형성 기술, 상담관련 교과목, 영양학, 보건학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에서의 실습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아보육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행 보육교사 교육과정에 영아관련 교과목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아보육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영아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젊은 부모들의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의 요구도 높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를 채우기에는 아직 영아보육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아보육을 주로 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단기 훈련받은 교사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아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교사들에게 보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영아기는 전체 인생주기에 약 2%에 불과하지만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고 이후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중요하나 하루 일과와 연결하여 적절한 교육적인 경험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아들 간의 개인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보육이 필요하므로 영아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젊은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영아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의 양성과정부터 4년제 대학에 이르기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학력에 따라 차등화 하였으나,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자에게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어 전체적인 교사의 학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학력저하는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문제가 되어 준전문가(semiprofessional)의 성격이 강하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데 반해, 보육교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체제로 인해 평균 학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최저 학력 수준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매우 낮아 교사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력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

이외에도 현재 영아 보육교사들은 유치원과 같이 장학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나 모임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사들의 장학 요구가 반영되고, 연합회에 교사들의 권리 옹호를 주장하고, 교사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등 교사의 복지 뿐 아니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영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영아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설문지에 의존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조사한 기존의 많은 연구와는 달리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에 본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질적 연구가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점인, 연구대상이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영아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인식 실태로 일반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확대하고 관찰이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유진(2003).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자(2000).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은(2005). 미국 조기헤드스타트의 문헌고찰을 통한 한국의 영아보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2), 97-111.
- 김지은, 안선희(2007). 영아교사의 개인적 배경 및 근무여건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3), 149-162.
- 김지은, 안선희(2009). 영아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97-216.
- 김현경(1980). 서울시내 유치원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린(1993). 유치원 교사들의 교직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2000). 영아보육시설의 현황과 과제. **2000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7-53.
- 서문희, 이 옥, 백화중, 박지혜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여성부.
- 손현희(2007). 영아반 보육교사의 교직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영아 보육프로그램의 질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배식(2002). 영아보육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희, 안효진, 문혁준(2008). 예비 및 현직 보육교사의 영아 발달에 관한 지식 실태. **아동학회지**, 29(5), 271-283.
- 양옥승(1993).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모임, 삼성복지재단.
- 이명조(2007). 가정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직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1-27.
- 이미화(2007). 전문성 측면에서 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과제. **육아정책포럼**, 4, 22-33.
- 이수정(1999).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완희(2004).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희, 임진형(2004). 영아전담 보육시설 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분석. **한국보육학회지**, 4(2), 193-215.
- 이희선(2004). 보육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학회지**, 4(2), 79-90.
- 장은실(2006). 보육교사의 유아발달에 관한 지식정도와 전문성 인식도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성애(1998).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8 추계학술대회자료집**, 85-130.
- 홍혜경, 김영옥, 지성애(2004). 한국 영유아 교원양성대학의 교과과정 현황 및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8(1), 5-32.
- Bloom, P. J., & Sheerer, M.(1992). The effect of leadership training on child care program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579-594.
- Bredenkamp, S.(1989). *Regulating child care quality: Evidence from NAEYC's accreditation system*. Washington, DC: NAEYC.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Ritzer, G.(1977). *Working: Conflicts and change*. England Cliffs, N.J.: Prentice Hall.
- Saracho, O. N., & Spodek, B.(1993). Professionalism and the prepa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actitioners.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89, 1-17.
- Spodek, B.(1975).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A search for consistency. *Young Children*, 30, 69-75.

접 수 일 : 2010년 1월 8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18일